

# 납입하신 보험료 모두 돌려드립니다

## NH농협생명, 투플러스NH종신보험(무) 신상품 출시



NH농협생명(대표이사 홍재은)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투플러스NH종신보험(무)을 출시했다.

이 상품은 사망보험금과 기존에 납부한 주계약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는 종신보험이다. 보장 유형은 일반형과 실속형 두 가지다. 일반형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금액 전부와 기존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모두를 보장한다. 실속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사망하면 보험 가입금액의 50%와 함께 이미 납부한 주계약 보험료를 돌려주고,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사망 시 보험 가입금액과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부를 지급한다.

장해진단보험료환급특약(무)에 가입하면 납입 기간에 50% 이상 장해 상태로 판정 시 이전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전부 지급한다. 이후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사망보험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신토록 유지된다.

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을 추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.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이란 납입기간 내 보험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30%까지만 환급해주는 유형이다. 납입 기간에 해지

환급금이 적은 대신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.

26종의 선택 특약이 있어 건강보장 설계가 가능하다. ▲ 뇌출혈 ▲ 급성 심근경색 ▲ 암 등 3대 질병의 진단비는 물론, ▲ 재해 골절 및 사망 ▲ 11대 성인병 수술입원비 ▲ 중증 치매 등 건강 관련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.

가입 연령은 15세부터 남성은 최대 74세, 여성은 75세까지다. 기존 종신보험 대비 최대 가입 연령을 높여 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.

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, 15년,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. 가입금액은 1천만원부터 25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. 보험료는 가입금액 5천만원, 20년 납, 월납,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1형(실속형)으로, 40세 기준 남성 17만4천원, 여성 14만9천500원이다.

홍재은 대표이사는 “이번 신상품은 종신보험의 고유한 기능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”이라며 “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입 연령을 확대한 상품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보장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”고 밝혔다. ●